

속 기록

- 회의명 : 제39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5. 3. 28(금) 14:00~19:00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불참위원 : 홍성태 위 원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39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을 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공연예술팀 방시현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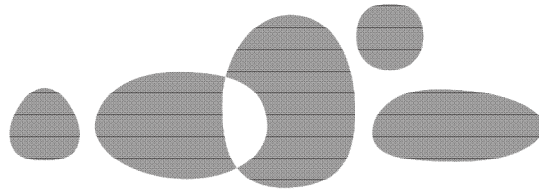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이 자리에 10인의 위원님이 참석해 계시고요. 이훈경 위원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셔서 총 11인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지원 대상 결정의 건,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프로젝트 지원 공모계획(안), 2025년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2025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계획(안), 2025년 미술관 운영계획(안), 2025년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운영계획(안) 등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1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자료 3쪽입니다. 전차 위원회 회의 관련 결과는 이렇습니다. 2월 28일에 개최한 제392차 전체회의의 의결안건 8건이 상정되어서 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장미진 위원 : 안건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어떤 위원이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며 언행을 조심해 달라는 노조 위원장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이미 온라인 상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게 좀 떨어져지 않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이미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노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공론화가 될 기회가 또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제 언행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살펴보고 떨어져지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김효은 노조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으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듣고 싶으신 건가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범주면 해 주시고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김효은 노조위원장 : 우선 직원의 대표로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민하시고 알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는 바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제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조합원한테 메시지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직접 접하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쉬는 시간에 너무 편하게 우리 직원을 대하는 것들이 노출돼서 사기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게 타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워낙 성정이 좋으시니까 그 뒤로는 계속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행을 하셨는지에 대해 신고한 조합원에게 되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반말을 쉬어서 직원에게 업무 관련해서 서명을 받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수의 위원님들께서 반말을 하시는 게 마이크와 줌 화면에 송출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사과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사과를 주고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지금 사과를 한 건가요?

김효은 노조위원장 : 아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요.

장미진 위원 : 물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사과든 해명이든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안은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말을 맺지 않으면 반말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장미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말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계속 가슴에 답답하게 안고 계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노조위원장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반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추후라도 확인하셔서 털어주셔야 서로 간의 감정이 남지 않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막말로 장미진 위원께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오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미진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 노조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켜시고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야단을 맞는 학생처럼 아무런 말을 못 하고 넘어갔거든요.

김효은 노조위원장 :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데요. 혹여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소원하게 또는 그런 부분들을 비하하는 듯하게 들렸는지? 그것을 본인들도 아셔야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게 되면, 지금 한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 : 다들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사실 2월에 위원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대리로 주재를 하시면서 4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왔고 오늘도 사실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회의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사담한 것이 노출되어서 노조 측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복수의 위원이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쉬는 시간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의 진행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수의 위원이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장님께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위원 전체에게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고요.

성기숙 위원 : 그리고 하나는 저도 작년에 전담심의제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극협회, 노조 측의 성명서와 입장문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요. 그게 몇 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11월 달에 예술위 노조에서 10쪽짜리 질문지가 왔어요. 제가 지금 작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사. 저희가 사측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궁금해서요. 이것은 우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의 이외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도 막 욕을 하고 이름을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대를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사석에서 위원님들 간 얘기를 하는 중에 나왔던 얘기라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초지종을 위원님들께 다 공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20호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극장운영팀 박성은 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극장운영팀 차장 : 안녕하십니까, 극장운영팀 박성은입니다. 오늘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 분야 실연심의로 홍승욱 팀장이 참석 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공연예술 우수 신작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장르별로 상이하나 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으로 선정작을 공연하게 되고, 공연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3월 안에 공연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작품들은 필수적으로 공연해야 하는 회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모두 2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해야 합니다. 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 외부 공연장에서 공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단체들의 원활한 대관 진행을 위해서 타 분야와 달리 먼저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및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정시공모 때 지원신청을 받아서 1차 서류와 2차 인터뷰심의를 모두 완료했고요. 지난해 말에 올해 실연심의 대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부터 3월 14일에 아르코꿈밭극장에서 창작뮤지컬분야 실연심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이후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31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1차, 2차 심의 모두 전담심의위원 5인께서 심의를 진행해 주셨고 3차 실연심의를부터 연극, 뮤지컬 전담심의관 1인이 추가로 구성돼서 총 6인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진은 50%, 여성은 66.7%로 구성되었고 창작뮤지컬분야 특성에 따라서 비수도권 인원은 없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2차는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차 실연심의를 단체별로 낭독공연 80분, 인터뷰 15분 내외로 진행하였고, 관객평가단 24명이 참여하여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이 진행하신 온라인 채점과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기대효과 20%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진행해 주셨고 관객평가단 배점은 20%입니다. 총 13개 문항에 대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하셨고 점수를 합산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결과는 1차, 2차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후보자 11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고 총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액은 16억 4,9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대상자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제척·회피, 행정결격, 지원포기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오늘 의결 이후에 3월 31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5월 중순쯤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고 2026년 1월과 3월에 공연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 심의 결정내역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지난번에 공모사업도 그랬고요. 연극 분야를 보면 대부분 70년대 생이 제일 위고 80년대 생이 주축이더라고요. 이번에도 황진수 전담심의관을 제외하면 70년대 2인 빼고 80년대인데요. 심의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이의 풀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떠신지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이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박성은 극장운영팀 차장 : 타 분야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후보단 내에서 적격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창작뮤지컬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후보단의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감안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창작뮤지컬 분야의 심의위원 풀 중에서 연령대 분포도는 어떤지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박성은 극장운영팀 차장 :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바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극·뮤지컬을 하나의 장르로 해서 2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이 16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7건인데요. 지원은 11건이 했어요. 그러면 “다른 장르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뮤지컬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화의 영역인데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순수예술의 창작 활성화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하는 심의기구인데요. 뮤지컬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무용 분야의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릿댄스나 실용무용, 순수무용보다는 약간 산업화 수익, 실용무용 쪽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심의를 하면서 순수예술 창작 활성화이기 때문에 순수예술에 방점을 뒤서 세부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뮤지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향후 기관이 갖는 정체성과도 연동이 된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의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심의위원 연령대도 궁금하지만 기획과 음악이 2인이고 연출, 극작, 전담심의관, 전담심의관은 행정 영역을 주로 보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뮤지컬이라는 것은 표현의 영역, 연기, 배우 영역도 중요하고 무용도 상당 부분 뮤지컬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나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대양식이나 무대의 공연미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심의위원이 들어 있지 않아서요. 이게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1개 단체당 평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향후 이것을 지속해 나간다고 할 때는 심의위원 구성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저는 뮤지컬 전문평론가 1인 정도라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에서도 공연 문법, 메소드, 표현 등의 측면에서는 심의기준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차 실연심의회에서 낭독공연 중심으로 실연심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낭독공연만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심의 평가가 어떻게 가능할지? 저는 사실 무용 전문평론가이기도 합니다만 밀도 있고 심층적인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창작뮤지컬 분야의 심사위원 풀이 따로 있나요?

이훈경 위원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이훈경 위원 : 앞서 질문을 주신 것과 같이 짧게 답변을 드리면,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같은 경우 작년에 심의위원이 2인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그나마 4인 정도가 계시는데요. 다른 극작이나 연출도 그다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대다수 실연하시는 분들이 실연자로 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 풀로 들어오셔도 이것저것 본인들이 수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면 심의위원으로 추천드릴 인력 자체가 워낙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해도 워낙 창작뮤지컬의 제작비 자체가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자체에 많이 지원을 안 하시는 형태세요. 그래서 풀에 뮤지컬 관련해서 기획, 음악, 연출, 극작의 인력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생 이상으로 넘어가기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으셔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연령대나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낭독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읽는 형태의 공연이 아니라 뮤지컬은 그 안에 노래도 몇 곡이 들어가야 되고 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입체 낭독극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100%를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낭독극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심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저 한 가지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우리 회의자료 11쪽을 보면 2025년 올해의신작 뮤지컬 심의결정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선정단체 7개를 보면 1~2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기획사 내지는 업체입니다. 업체에 2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도 아까 이훈경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 풀이 그렇게 현장에 없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뮤지컬을 앞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 차라리 이런 것은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이관하고 거기에서 범위를 키워서 받든지 그쪽은 기관의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6억 2,000만 원은 문예위에서 순수연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도에 심의위원 풀을 만들 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600명에서 100명을 남길 때 너무 기준이 없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600명을 다 날리고 100명을 뽑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

정병국 위원장 : 어디에서 100명을 뽑아요?

장미진 위원 : 그때 심의위원 풀에 들어가 있던 600명 중에서 저희가 3년 동안 심의를 맡길 사람 100명을 뽑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넣죠.”, “이 사람은 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때 제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정병국 위원장 : 2,000여명이 있을 때 600명으로 줄였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미진 위원 : 예. 연극·뮤지컬 분야가 600명이었는데 그중에 100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때 “옳지 않다.” 라고 생각했는데 심의위원을 뽑을 때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줄일 때 꼭 적당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심의위원을 추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류재수 본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풀을 너무 줄이는 과정에서 창작뮤지컬 부분은 우리가 전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끝까지 사람의 풀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분들은 제외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2026년도 사업을 준비할 때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하기에도 심의위원 풀의 재검토는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현장업무보고를 분야별로 했었는데 창작뮤지컬 분야에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아르코에서 지원하는 창작뮤지컬은 300석 이하 중소규모의 창작뮤지컬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라이선스나 대극장의 부분은 시장의 영역이나 콘텐츠진흥원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체계를 정리해 달라는 의견과 창작뮤지컬 쪽에서는 아예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도 창작뮤지컬 분야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며칠 전에 장관님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순수예술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뮤지컬 그리고 발레. 이런 쪽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분야가 이렇게 돼서 전개가 되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작뮤지컬 분야의 현장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창작뮤지컬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그나마 창작뮤지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전부 다 해외의 기존 작품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나마 이것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줘서 뮤지컬계가 잘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들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에 창작뮤지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로 뒤야 될 것인지? 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음악과 연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무용까지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창작뮤지컬 현장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조합해서 같이 한번 해당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저도 현장업무보고로 뮤지컬도 다 봤는데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소규모 창작뮤지컬은 300석 이하고 나머지 대형은 콘텐츠진흥원 이관 등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라도 문예위는 산업화로 가기 전 단계의 토대를 닦는 기반을 마련하는 쪽의 주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도 그런 쪽이시고요. 그랬을 때 작년에 대본공모가 있었는데 무용도 대본을 넣어주면 발레도 전통발레 서사가 있고 한국적 무용극을 하려면 대본이 기반이 돼서 무용도 대본을 지원할 수 있게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수용이 안 되었는데요. 창작뮤지컬이라고 하면 한국적 창작뮤지컬이 잘 만들어져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산업화가 되면 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기반을 닦는 지원의 카테고리를 좀 열어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말씀이고요. 현장업무보고를 할 때 이번에는 그래도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셨고 모더레이터도 해 주셨고 현장의 의견을 다 수렴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잘 파악하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사업을 설계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더레이터를 하고 현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것을 기반으로,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더해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된 사업안을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창작뮤지컬은 사실 제가 알기로 위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르코가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르코가 창작뮤지컬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1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11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작뮤지컬을 해서는 시장에서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보

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나라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세계로 나가는 베이스를 까는 노력을 아르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억 원 정도의 총 신청액이 들어왔고 16억 원 정도가 선정되었는데요. 7건 정도가 선정돼서 선정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6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창작뮤지컬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창작 뮤지컬 쪽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도 이루어지고요.

송시경 사무처장 : 참고로 1차 때는 53건이 들어온 다음에 걸러서 최종적으로 11건 중에 7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뮤지컬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굳이 창작뮤지컬까지 하면서 위험부담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가지고 창작뮤지컬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를 높여줘서 유도를 하든지, 이게 그러지 않으면 창작뮤지컬이 고사한다. 이게 없어지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들을 현장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또 잘 나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것을 하려는 생각들이 없는 거죠.

구문모 위원 : 기본적으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순수예술에서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데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들은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간단체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수익이 안 되니까요. 창작은 수익이 안 되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다만, 외국 것을 수입 해서 하는 것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협회에서, 단체에서 돈을 주고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하기보다는 차체에 이것을 재검토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에 '창의성' 이라고 기준을 삼았는데 과연 창의성의 기준이 뭔가? 예를 들면 콩쥐팍쥐에 다른 것을 넣어서 했을 때도 창의성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의제도에 보면 창의성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모호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체에 전체적인 심의제도뿐만 아니라 여기도 장르문제도 그렇고 시장문제도 얘기를 하잖아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근본적인 것부터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산업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원화를 해서 시장에 맡길 대형뮤지컬은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고요.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되면 그 자본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문예위는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지원하는데 골고루, 아까 극장예술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지속한다면 지원체계를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의 의견을 포함해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포함해서 내년 사업을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1121호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프로젝트 지원 공모 계획(안)입니다. 본 안전은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지원이 원래 지난 12월에 정시공모로 한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엄격한 심의를 하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에 대한 추가공모의 성격을 띤 공모입니다.

기존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약간 NPO 모델로 해서 시각예술 분야의 주요 사립미술관과 대안 공간들을 굉장히 큰 단위의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곳당 최대 2억 원의 규모로 지원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진행한 공모와 동일하게 공모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시공모 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많은 공간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엄격 심의를 통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또 동일하게 공모심의를 같은 내용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재심의를 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약간 기획형으로 추가공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특정 프로젝트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서 지원규모가 최대 1억 2,000만 원 이하로 조금 단가가 내려갔고요. 나머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정시공모와 동일합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기획공모로 하고자 하느냐 하면, 총 3가지의 유형으로 기획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구분이라는 항목에서 ‘건축’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 아래에 ‘미디어아트’ 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 아래에 ‘아카이브연구소’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그냥 지정한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추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건축 관련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예술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에 사업혁신TF가 운영되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었던 TF였는데 그때 시각예술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라고 했을 때 나왔던 최종 결론 중에 한 쪽지가 바로 건축 영역이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건축전은, 그러니까 2년마다 한 해는 건축 그리고 한 해는 미술전이 베니스에서 진행되는데요. 그 사업 외에는 국내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문예진흥법 상에도 예술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건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 따보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고 올해도 한 차례 더 노력은 할 건데요.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이런 기획사업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축 관련 전시 및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아트 전시 분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아트앤티크에 상당한 공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에서 기관 간 기능과 다루는 사업의 영역을 조정하면서 아트앤티크에 대한 상당 사업들이 모두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는 아트앤티크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다루는 아트앤티크 사업이라는 것은 테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영역에서의 기술 지원으로 강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예술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아트앤티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현장의 산업 분야에서 다들 활성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정말 ‘아트’ 예술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진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는 아트웍(Artwork) 수준에 이르는 작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앤티크 영역에서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예술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단순 미디어아트 전시가 아니라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이라는 명칭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나 하면 삼성코엑스몰 앞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광고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이라는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된 파사드 스크린에서는 송출되는 내용의 최소 30% 이상은 광고가 아닌 문화 예술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이 송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카이브 연구조사입니다.

내년이 백남준 서거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백남준 작품 조사연구에 관한 부분을 지원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광고는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에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아카이브 연구조사의 경우에는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이 조금 더 다듬어지는 대로 1억 원의 예산으로 별도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공모(안)을 보면 작품 송출과 공간전시 2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작품 송출과 공간전시에서 보면 미디어아트 부분이 있잖아요. 작품을 영상물로 송출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파사드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건물에 쏘는 파사드 개념이고요. 미디어아트의 경우에는 모니터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것을 가지고는 공모사항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파사드라는 방식, 송출 방식을 여기에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이 매체 자체가 아직은 미술계 내에서도 생소한 매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제출서류에 미디어 쪽은 송출 관련 기관 간 협약서를 제출하는 게 필수 서류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출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건물에 있는 옥외전광판을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사옥에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필수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하면 연락처를 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지원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시각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건축, 미디어아트까지 개념의 확장성 측면에서 우리 문예위가 이것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지원대상에서 민간위탁운영자라고 하고 괄호로 “지자체 등 공공소유 공간의 경우”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의 공공소유 공간이면 약간 민간이 아니라 공공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라 사업수행을 민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시설 소유자는 지자체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일부 있어서 폭넓게 자격요건을 넓히려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참고로 작은미술관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공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16쪽을 보면 지원대상 사업의 공통사항에 각종 미술 관련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9월 개최를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지원심의 의결이 되는 게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로 절대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예위가 이것은 조금 시간상 넉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대상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공모하나?” 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서요. 이런 것은 조금 더 다듬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의무는 아니고 권장이다라고 촉박한 일정에 의해서 불필요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 문건은 지난 정시공모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던 문구이기는 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이 건축 전시, 미디어아트, 아카이빙 관련인데요. 이게 2월 전체회의에는 백남준 아카이빙을 한다는 게 좀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료가 거의 빠지다시피 해서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그 건은 아마 기록원에서 얘기한 다른 사업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제 번째 아카이빙에 백남준을 한다고 하면 의결할 때 가치판단의 근거가 여기에서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까 고민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 백남준 미술관이 있어서요. 거기에서는 전시와 함께 도록도 많이 나왔고 제가 거기에 자주 가는데요. 백남준 아카이빙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회의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누락 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가 모호한데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을 보면 이것 역시도 심의위원 구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획/국제 분야가 4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기획/국제 쪽의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전문가겠지만 기획/국제 영역이라서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기획/국제 영역은 사실 2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가 가능하신지를 여쭙겠습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준 아카이브 연구조사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말씀해 주신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요. 해외에는 많은 기관들이 백남준 자료를 소장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백남준이 현대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나 자료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잘 배우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내년이 서거 20주년이기도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예술위원회가 이것은 당연히 연구단체나 공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선정할 것인데요. 그런 기관 간의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어서 기관들을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공동수행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심의위원회 구성인데요. 5인은 정시공모에도 참여하셨던 전담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미디어와 건축 분야에 특화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봐주실 수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갑영 위원 : 저도 물어볼게요. 23쪽 붙임을 보면 지역균형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지역균형제도 적용에는 비율이 있는 건가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이것은 신청비율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비수도권 비율을 최대한 맞춰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비수도권은 14건이고 수도권은 61건이라는 얘기죠, 신청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청이 많지가 않죠.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정갑영 위원 : 이런 사업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대체로 문화예술 사업들이 서울에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항상 남는 질문이 그겁니다. “서울문화재단과 뭐가 다른가?” 듣다 보면 상당 부분이 잘 알려진 미술관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창작의 힘을 북돋든 아니면 이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결국은 서울이라는 얘기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장미진 위원 :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2025년도 정시공모 20억 원 중에 14억 원만 주고, 그러니까 89건이 신청했는데 19건만 선정하고 20억 원 중에 6억 원을 기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갑영 위원 :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자꾸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는 문제 자체에 있다고 봐요. 서울문화재단이 만만치 않게 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요. 이런 식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결국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칫 서울문화재단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자체가 좀 궁금하네요.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우선 사업에 국한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문화재단이 있고 지역을 지원하면 지역문화재단과 중첩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 간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각예술 파트에서 문체부 산하기관 혹은 광역재단 단위로 사업 비교검토를 했을 때 그래도 누수가 있는, 지원의 빈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 등에서는 전시 프로젝트는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작가 개별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술생태계의 중요한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주요 공간 자체의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업이 20여 년 가까이 잘 지속되어온 공간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러해서 우리 공간사업을 되게 작은 지원단가로 좁혀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영국예술위원회 NPO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앵커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지원을 통하고 그것을 거점화해서 생태계를 풍요롭고 건전하게 한다는 게 있는데요. 예술위원회 공간사업을 그런 형태로 특정지어서 진행해 볼 수 있겠다고 해서

단가가 이전 해에는 최대 1억 원이던 게 2025년도에는 최대 2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에 뽑던 공간들, 성과도 별로 없거나 조금 미숙한 공간들까지 뽑을 필요가 없다는 심의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년과는 다르게 대량의 미선정이 발생했고 잔액이 발생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하여튼 계속 남는 질문은 앵커거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지원 받는 건 다 사립이거나 민간입니다. 그러면 사립이나 민간기관들이 미술공간에서 대표적인 공간들이 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공간들을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앵커를 만들기 위해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저도 이 문제들 때문에 며칠 전에 장관과 협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문화재단이 하는 역할,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작년과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번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은 게 일단은 소액다건은 배제를 한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지원을 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자. 찢끔찢끔 그냥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과물을 유도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년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업별로 분절이 되다 보니까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서 잘 했던 사람이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청년도약사업에 지원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단계로 창작주체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다음은 주체로 갈 수 있게 해서 졸업하는 과정의 사이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협의해서 크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잡았지만 작년은 시작을 부분적으로 했고 올해 어느 정도 이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전담심의인 것이죠. 평가를 해야지 그것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담심의제도를 공고히 해서 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사립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설립한 사람들이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 사립미술관도 지금 보면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몇 개를 빼놓고는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하는 재단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만 있고 사업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것을 방치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간을 갖고 있는 데에 예술인과 접목을 시키고 평론하는 사람과 같이 묶어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유도해서 공간은 공간대로 살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형성되는 아트페어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작품성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역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로 묶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작품성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장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 결과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장다운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다보니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블랭크가 나는 지역의 것을 기획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공모를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계속 문제로 남는데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처음에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예술공간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현황은 그렇지 않다.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미술관 하드웨어라도 지어놓지 않으면 그 공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사업비라도 지원을 해서 그게 돌아가게 하는 게 사회적 재산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갑영 위원 :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기숙 위원 :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저는 어떤 관점이나 하면, 광역문화재단과 우리 문예위의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면 이 건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토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문예위 내에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주체에 3가지 지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창·제작, 공간지원, 비평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공연예술 쪽에 있는 공간지원이 뭐냐 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예술 전문 공연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시각예술 분야의 공간. 그러니까 미술관이죠. 민간이 갖고 있는 공간을 지원하되 조금 더 특화된 그러니까 건축 관련, 미디어 관련, 아카이빙이라고 하면 공간을 지원하되 조금 더 특화된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취지라서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영역의 확장성도 있고 미래적인 가치도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요. 제가 몇 가지 의문을 정교하게 다듬으면 이것은 확장성과 미래를 선도하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공연예술의 창작주체 공간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 제가 해석한 게 다른가요?

정갑영 위원 : 그렇다면 지원의 항목을, 기존에 이름났던 미술관인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은 지원을 해야지 운영이 된다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죠.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또 특정 미술관을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 놓고 지원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논의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아니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의 방향 등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적인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은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소위원회가 구성되거나 TF팀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요. 이 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있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립을 포함해서 이미 지자체에서 법에 근거하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하는 공고도 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지방별로 다 하고 있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그런 가운데 집중해서 사립미술관이나 진흥법 조례에 의해서 육성해야 한다면 아르코에서는 사립까지 해야 되나? 민간으로 구분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 지원은 하되 사립과 민간을 좀 구분해서요. 왜냐하면 사립은 이미 지자체에서 법률 하에 운영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다 받지는 않고 지원을 못 받는 사립미술관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이 나온 서울문화재단의 사업들은 개인이나 서울시 거점을 통해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우선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거점을 두고 해야지만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건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김진각 위원 : 창작주체 공간선정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정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재정문제라고 하면 심의기준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심의기준에 재정적인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간과 사립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심의기준에 그런 게 녹아 들어가야 앵커미술관으로서 미술관을 골라낼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의기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든 사립이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현재 사립미술관 중에서 재정자립이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는 아예 기능이 안 됩니다. 지원을 해 줘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면, 처음 출발할 때는 색안경을 끼고 불 정도의 미술관들인데도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래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그런 게 만들어진 게 그런 이유인데 과거에는 사립미술관에 사업비도 안 줬어요. 못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식이 바뀐 거죠. 사립미술관이든 뮤지엄이든 만들어지면 그건 사회적 재산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줬는데 운영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그 공간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심도 있게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이루어졌고요. 진흥법이 만들어졌고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소위원회나 TF팀의 과정을 거치든 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온 사업별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김미라 위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업이 선정될 때 공간지원이라고 하니까 공간 자체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심의할 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미술 쪽에서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 선정의 기준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왔는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타당한지? 이것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의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할 때 공간 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기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미 있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조달을 문예위에서 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선정했다는 것을 전달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정갑영 위원님이 의문을 품으신 것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문예위에서 지원한 단체들과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중복성 여부가 체크 되는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체크가 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한 지원은 사립박물관협회에 줘서 사립박물관협회에 등록된 회원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1년에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1년에 1건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고 하면 다들 재벌가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신문화의 근간이라 뜻과 의지를 가진 분들이 그런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만.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다 검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사업비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별이 되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운영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공간과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가장 인기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공간에 쫓겨 그 공간에서 작가를 하나 선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론도 하고 그 사람의 작품을 아카이빙 형식으로 해서 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사업으로 현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간에게는 일할 거리를 만들어 주고 작가들한테는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정리를 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도록이 만들어져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복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복될 수가 없죠.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를 갖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결과적으로 기존에 서울 중심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 등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서울에 있는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수월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지역 균형을 얘기하면서 제목을 바꾸고 주제를 바꿔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혜택을 받게 한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딜레마인데요.

구문모 위원 :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너무 말씀을 계속하신 분들이 계속하셔서요. 말씀하신 분을 제가 서포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지해요. 지금 문예위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꾸 지방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추세거든요. 그런데 쪽 사업들을 보니까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한다는 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국토부에서 주력으로 하는 게 국토균형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물, 랜드마크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담당을 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차체에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 2개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점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문예위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문예위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번에 2030비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하면 작품들을 지속가능하게 해서 세계로 나갈 것이냐에 초점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액다건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규모를 키우고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뽑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여기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과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일리가 있고 공감이가 가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끝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소위 TF팀이든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심사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기숙 위원 : 24쪽을 보면 단년지원이 있고 다년지원이 있는데요. 다년지원이 2025~2027년까지 올해 심의에서 다년지원을 5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년보다 다년의 액수가 높아요. 그리고 3년 다년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원사업 프로젝트가 동일하게 3년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 매년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고 차년도 지원 반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다른 장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년지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평가 후에 등급을 매겨서 몇 등급 이하는 얼마를 깎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환수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3년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숙 위원 : 공연예술 분야의 공간지원에서는 다년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의 유무를 결정하고.

정병국 위원장 : 공연 쪽에도 주체사업은 다년지원을 하고 있죠.

성기숙 위원 : 창,제작과 비평지원은 좀 있는데 공간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시각예술의 공간 쪽이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이 공간프로젝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공연에서는 공간지원이라고 하면 거의 대관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기숙 위원 : 그 공연장에서 1년간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류제수 예술지원본부장 : 문학이나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간지원 사업은 다 있고요. 이것은 창작주체에 편성되어 있고요. 각 장르별로 다년을 많이 선정할 장르도 있고 다년을 조금 선정한 장르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정성이 적은 장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각예술 쪽에서는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5개 공간들은 이렇게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연도 중반에 모니터링과 최종 평가를 거쳐서 2차년도와 3차년도에 환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향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의결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저는 반대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장미진 위원님은 반대고 나머지 위원님은 찬성으로 해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22호 2025년 문화예술후원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2025년 문화예술후원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드린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와 관련된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해서 예술위원회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문화예술후원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후원활성화사업은 민간후원활성화 지원 그리고 후원인증제도, 매개단체지원 및 매개인력육성 그리고 기부금 사업, 예술나무 캠페인, 예술가의집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많더라도 좀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후원·홍보센터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간사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에서 작년 10월부터 계속 꾸준히 논의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6차 회의 때인데요. 10월에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지역매칭 40억 원 그리고 예술나무 캠페인에서 10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후에 총 5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지역 중심 예술·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자문회의를 총 7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장관님 이하 문체부에서도 관심사항이라 2025년 2월에 문체부와 협의를 했고 그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월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2차례 열어서 10차, 11차 회의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이번 자료에 담아 보려고 했고요.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크게 개인후원, 기업후원 그리고 기반조성으로 나뉘어서 시간적으로는 일회성보다는 연중 캠페인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후원을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금 확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후원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13억 5,500만 원입니다.

민간후원활성화 지원이 75억 원, 후원인증제도, 매개단체지원 및 인력육성이 8억 8,000만 원 그리고 기부금 사업이 112억 8,300만 원, 예술나무 캠페인이 15억 4,300만 원, 예술가의집 운영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의 5가지 사업 분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민간후원활성화 지원은 먼저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예전에는 ‘문화접대비’라는 이름이었던 현재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를 조금 더 확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비 지출액을 추가로 비용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아쉬운 점은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 원이고 한국메세나협회에 지정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지출 유도를 위한 캠페인 그래서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의 1:1 매칭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에 총 10건 지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한 인지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데 브랜딩 효과성을 제고하고 조금 더 타겟팅을 명확화한 홍보를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이 될 때마다 연장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격년으로 지출현황 및 비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황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3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메세나협회 지정교부금 9,000만 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했을 때 기금으로 해서 1:1 매칭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 사정상 1:1까지는 아니고 0.5에서 0.7의 기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08건에 총 31억 1,00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최근 5년 동안 지역에서 메세나협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메세나협회도 5년간 327건의 결연을 이 사업을 통해서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에 지정교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올해 결연 245건, 기업후원금 38억 원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산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지원에서 포선이 적은 문학과 무용 그리고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우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지역메세나를 계속 지원하고 거기에서도 매칭펀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조사를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에서 문화예술 후원 쪽으로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외 메세나 사례연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1,0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 증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5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운영비의 증액은 최소화하고 심의비, 홍보비, 행사비도 감액해서 새롭게 다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 메세나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안)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4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재단, 기업관계자 자문회의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논의 그리고 문체부와 협의까지 다 거쳐서 열심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대표 예술가(단체)와 기업 간 후원결연에 대한 사회적 시상제도로서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 협력을 통해서 단순히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간에서 후원매개 역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관은 광역·기초문화재단이 지역 내 예술-기업 동반성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해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기업후원 결연 노력에 대해 기업후원액에 비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예술단체는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지역축제, 공연단체, 작가 등 공공을 제외한 전체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기업 외 공기업, 기업문화재단, 개인사업자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재단에서 단체로의 지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해서 정산 의무를 없애려고 합니다.

시상금은 기업 1, 지역 1, 문예기금 1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되 지역여건 및 기업약정 조건별로 매칭인정액 및 매칭비율 산정을 차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로 약정을 하거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약정을 하거나 단년이 아닌 다년 약정을 하는 경우 우대할 예정이고요. 지역의 경우에는 동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 우대하고 2026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서울보다는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역보다는 지역을 조금 더 우대하고 정책적인 제안에 따라서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은 우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서울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자치구는 포함하되 매칭 인정액이나 매칭비율 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동반성장을 단순히 사업에서 머물지 말고 확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통해서 후원매개를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도 예정하고 있고요. 또 지역재단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재단들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일부 후원매개 운영비 사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의 소속 단체 지역재단들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후원매개 인력 파견이나 성과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등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하 73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가지

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도 사업 홍보와 지역에 있는 단체에 대한 연결 등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하는데요. 12차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공모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이제까지 민간후원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정병국 위원장 : 전체적으로 다 해 놓고 해야죠.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후원인증제도, 매개단체지원 및 인력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증사업은 2014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문화예술후원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증하고 후원매개단체를 인증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 역대 최대 기록인 78개의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매개단체의 경우에는 9개 단체에 총 3억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선방향은 후원 우수기관, 대부분 기업인데요. 기업들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11월 정도에 인증식을 개최하는데 기업들 대상이기 때문에 메세나 대상과 통합하여 개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매개단체는 메세나협회 그리고 지역메세나협회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있고요. 민간의 후원매개단체는 없기 때문에 민간의 예비후원매개단체 지원 트랙을 신설해서 민간에서의 후원매개 활동을 응원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인증제도는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은 인증 12개 단체 중에 지역메세나협회 등 한국메세나협회에서도 일괄 지원을 하고 예술위원회는 그 외 8개를 지원하게 됩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의 예산은 총 5억 2,500만 원이고 2024년도 현재 우수기관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개단체 12개를 포함해서 총 78개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고요. 명단을 보시면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고르게 그리고 업종도 제약부터 백화점 그리고 보험, 전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후원 매개인력 양성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후원 매개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먼저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 매개인력을 지난 4년간 약 152명 정도 배출했는데요. 아무래도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분들을 계속 교육해서 배출하기보다는 배출된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후원의 총량 확대를 도모하려고 하고요. 현재 아르코아트너스. 아트너스는 아트와 가든으로 정원을 키운다는 합성한 용어인데요. 후원 매개인력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르코아트너스를 해 4명 정도 선발해서 각종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총 소요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기업 및 기업문화재단 문화예술후원 기여도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예술후원 기여도 진단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총 112개 기업문화재단에 대해서 기여도 진단을 해서 39페이지를 보시면 매일경제와 세계일보에 보도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신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에서도 많은 문의를 해 주셔서 기업문화재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문화재단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네트워킹과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업문화재단들이 사실 예술계를 위한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들이 예술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도 나온 의견이었는데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술가들이

기업문화재단의 사업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네트워킹 하려고 하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문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 문화력 지수 개발 연구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제까지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부금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건부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에 조건을 다는,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지정을 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으실 수 없는 영세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진흥원 설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간에서 조건부 기부금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정산과 영수증 발급이나 각종 지원을 총괄적으로 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 사업은 그래서 예술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2019년 표를 보시면 185억까지, 공공미술을 합치면 총 300억까지 갔다가 코로나 이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다시 조금 회복해서 2024년에는 기부금이 10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정도로 다시 회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가 줄었다기보다는 예술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기부금을 받으실 수 있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도 유사한 기부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계획은 아무래도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의성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12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112억 원 정도가 다시 예술계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예상보다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예술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정기후원(CMS)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납부해 드리면서 예술단체가 정기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후원자수가 10명 이상인 단체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24년 현재 92개 단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기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납입액 기준으로는 1년에 약 4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은 아무래도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활용함과 더불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적은 단체는 아무래도 교육이나 개도도 하지만 활동이 저조한 단체는 신규단체로 대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입니다.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소액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모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근에 문화예술계에서 젊은 예술단체는 클라우드펀딩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데요. 기존에는 텀블벅 그리고 카카오킵이까지 두 가지 플랫폼을 지원했는데요. 작년부터 알라딘, 와디즈, 네이버해피빈, 오마이컴퍼니까지 예술가와 단체들이 자유롭게 플랫폼을 선택하실 수 있게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 모금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게 사실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수수료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예술나무 캠페인입니다.

예술가치 및 후원에 대한 연중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꿈밭펀딩을 계기로 명분이 있는 모금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9,300만 원이라는, 저희 예술나무 브랜드인데요. 예술나무 설립 이래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올해 추진 방향은 아코비전 2030에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여는 아코”가 있습니다. ‘잇고’에 착안을 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개발해서 방송 및 SNS를 활용해서 전 세대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방송 그리고 SNS 홍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44페이지에 대중후원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입니다.

작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의논하기도 했지만 후원유치가 2023년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후원자, 잠재적 후원자, 온라인 홍보, 이벤트, 언론 홍보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미디어 협력을 통해서 방송 및 온라인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캠페인으로서 페스티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디어와 협력하는 순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예술후원인의 날입니다.

이 부분은 고액 후원과 관련된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2023년에 비해서 작년에 1억 9,500만 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예술가의집 그리고 뉴서울CC를 연계해서 연중으로 이런 고액 후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멤버십 행사는 라운지클럽, 한국문화진흥, 클래식 공연, 미술품 경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약 5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술가의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의집을 대관도 하고 기획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공동기획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의집에서 만나는 예술, 예술가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많은 예술단체와 공동기획으로 그분들에게는 무료 대관과 홍보 지원을 해 드리고 예술가의집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술가의집을 활용한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과 더불어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작년까지는 없지 않았나요?

정병국 위원장 : 계속 있었어요.

서승미 위원 :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매년 했고요. 예술나무 캠페인은 2012년부터 했고요. 의결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도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정시공모사업은 당연히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서승미 위원 :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까지 예술나무 후원 사업이 있었는데 보고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거의 유명무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돈의 액수도 높아지고 매칭으로 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서승미 위원 :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후원 매개인력 양성 사업으로 152명을 배출했잖아요. 152명 배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나 기업문화재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예술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별도의 취업 결과는 부족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후원 매개단체를 창업하는 쪽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앞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152명을 배출해서 결과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체크를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내가 후원 매개자가 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방문화재단이나 일반 사립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서 후원 매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예술나무후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어차피 교육을 시켜서 후원 매개자를 배출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기업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후원을 따왔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을 한번 해 보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을 지방문화재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명을 채용했나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4명을 뽑기는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4명을 처음으로 뽑게 된 것이죠.

정갑영 위원 : 37쪽의 성과 및 한계를 보면 거기에 “코로나19 이후 기부문화 쇠퇴에 따른 배출 인력의 취·창업의 어려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기관에 있던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한 것인지? 여기 표현대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152명을 교육하려고 했으면 그동안 교육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따르면 별로 결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진각 위원 : 사실 저는 이 사업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매개인력을 양성해서 취·창업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매개인력을 요구하는, 사실 지역문화재단은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광역문화재단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데는 있을 수가 있어도 작은 지역문화재단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

도의 수요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매개인력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을 좀 받죠?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아닙니다. 비용은 다 무료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파악해 놓고 그다음에 뭔가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무조건 교육만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갈 자리도 없고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올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직업능력개발원과 연구도 하고 다행히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미래의 유망직업 13개에서 이 직군이 선정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 기부문화가 쇠퇴되면서 취·창업이나 일자리화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이 직업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워낙 낮고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유도를 하자고 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왕치선 위원 :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기는 한데요. 44페이지의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행사를 하려고 쓴 돈이 6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46페이지에 예술후원의 날이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안에서 보면 수입은 1억 9,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투자대비 얻어 들인 게 너무 없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설명을 드리면,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6억 원 정도를 써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니까 30%가 조금 못 되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산하라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이유는 “후원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사전, 중간, 사후로도 계속 후원과 관련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페스티벌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페스티벌처럼 젊은 사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3대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 모든 세대들이 문화예술 후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실 수 있는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산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연중으로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행사를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온라인 쪽을 통해서 노출도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후원인의 날, 고액 후원 같은 경우 2025년 예산 5억 8,000만 원은 작년에 비해서 증액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에 관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작년에는 약 2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을 모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밸런스는 맞는 편에 속하고요. 올해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분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국립예술단체 후원회 등 전체적인 고액후원 현황을 파악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대비해서 고액후원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분들을 멤버십으로서 조금 더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약간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다면 이런 식의 지출 대비 거뒀던 게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의결하셨나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제작년에 처음으로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을 하게 된 것은 모금을 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아니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 것입니다. 기념 음악회를 하는 김에 이 캠페인을 같이 엮어서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요. 예술 후원센터가 생긴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정기회원이 26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당일 모집된 게 200여명이 되는 성과를 보면서 실무진들이 “이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게 된 동기에 그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페스티벌에도,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페스티벌이 없는데 여기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페스티벌이라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평이 너무 좋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가족페스티벌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후원금 모금과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있는 젊은층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장으로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 레퍼토리도 그런 쪽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수지로 본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문화향유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플러스알파로 모금 캠페인도 하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가자.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다고 치고요. 보니까 수입액이 있잖아요. 예술가의집에서도 수입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수입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 기관이 주로 돈을 나눠주는 기관인데 신기하게 수익이 생겼다면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작년도에 모금한 금액이 9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의 활용 사업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아르코꿈발극장을 새로 개관하면서 꿈발극장의 시설 개보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꿈발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발펀딩’이라는 캠페인으로 그것을 알고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금액은 모두 ‘꿈발펀딩’으로 조성을 해서 올해 아르코꿈발극장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후원인의 밤은 크게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와 클래식 공연이 있었는데요. 미술품 경매로 들어온 금액은 미술로 환원하고 클래식 공연으로 들어온 금액은 클래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나무기부금 일반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부금배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펀딩이나 기부금 사업을 개발해서 안을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확정해서 사업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왕치선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도 위원회인데 기부금품배분위원회라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기부금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예술위원회도 같이 배분 관련된 심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는 우리 기관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쓸까봐서 공정하게 기부금품 법에 의해서 배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문예위에서 유일하게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부서인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요. 35쪽을 보면 2024년도 우수기관 명단 인증이 78개라고 했는데요. 기업에서 이

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 도표를 보면 인증연도가 2015년부터 되었거든요. 누적통계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2024년에 78개 인증이 신규로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누적통계입니까?

정병국 위원장 : 매년 심사를 해서 인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계속 받은 기업이 되는 거죠.

성기숙 위원 : 그러면 공금한 게 이것은 약정이잖아요. 약정이라고 하면 그냥 약속인데 실제 기부금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이 인증은 약정이 아니고 실제 후원한 금액, 후원활동과 실적을 보고 인증을 해 드리고요.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3년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될 때마다 계속 연장 인증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고요. 계속 누적으로 현재 78개가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 그리고 40쪽에 보면 조건부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위 지정기부금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어느 특정한 것에 주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이 축제를 지원해 달라거나 이 전시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쪽의 의지를 반영해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정산 의무는 없는 건가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기부금은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부자의 요구는 투명한 집행을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42쪽을 보면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약정은 연도별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클라우드펀딩 같은 경우는 2024년 작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산을 좀 줄여서 추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에서 예산을 설정한 결과입니다.

배은주 위원 : 클라우드펀딩에서 문의를 드리면 전에 우리 예술위에서 클라우드펀딩 아트트리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신청건수가 90 건인데 성공건수가 89건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아트트리는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클라우드펀딩 협력사가 확대되었으니까 사업을 이관해서 자체 아트트리 클라우드펀딩은 안 하는 건가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자체적으로 클라우드펀딩을 했던 것은 사업 초창기였고요. 기존의 플랫폼과 협력해서 추진한 지는 7년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런데 펀딩의 구조상 메커니즘 자체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크라우드펀딩을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업체들한테 주는 수수료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이나 열악한 단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향후에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성공 목표액 달성 외에 어떤 알파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 외에도 조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김미라 위원님, 김진각 위원님, 장미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30쪽을 보시면 ‘문화로 인사합시다.’에서 예산 항목이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받은 대로 예산 항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밑에 있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조사’는 작년에 했나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조사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이 확대된 것이죠?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맞습니다.

구문모 위원 : 또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건은, 사실 첫 번째 1-1도 그렇고 1-2도 그렇고요. 김진각 위원님께서 메세나협회 관계자를 불러서 상세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자리였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에 대해서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효과는 없더라도 쓴다는 얘기를 해서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제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기는 했는데요.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혁신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문체부가 제도 개선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계속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 돈을 쓸 때 후원하는 기업의 경영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2에 보면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라는 게 또 있거든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요청해서 예산 항목이 31쪽 밑의 하단과 32쪽 맨 앞에 예산 항목이 나왔어요. 학술연구·조사, 심의비, 사업운영비 항목은 제가 못 봤는데 상세하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것은 예술지원 매칭펀드와 지역메세나 확산 사업하고 나머지 기타 비율을 보시면 제가 본 자료와 거의 동일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31쪽을 보시면 홍보·학술·조사연구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내용이 그때 제가 제안을 했고 더군다나 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도 많은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신규라고 해서 해외메세나 사례 연구가 나와 있잖아요. 김진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0건 이상 사례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는 “53개 케이스 스터디로 만나는 해외 메세나” 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DB도 마련해 놓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문제점을 얘기해 놓고 용역은 이렇게 하겠다는 건 모순입니다. 그 문제점을 갖고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문제점을 얘기해 놓고 옛날 얘기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메세나협의회와 얘기

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경우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옮길 때는 고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이 홍보·학술·조사연구에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기존의 기관들이 하듯이 연구수요 조사를 미리 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이슈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기업이나 매개인력 등 조사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쓰는데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에 기업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도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 중에서 뭐냐하면, 동반성장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개인력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자고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인식을 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술후원을 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개단체에만 의존할 경우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역량도 부족하고요. 이런 경우 온라인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메세나협회 지정교부금 34억 1,000만 원은 지난번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메세나협회와 같이 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을 주셔서 매칭펀드 외의 비율을 그 당시 회의에서는 13%였는데 지금은 11%로 조정하면서 심의, 홍보, 행사비를 대폭 감액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소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예산을 쓰는 건 비율을 문제 삼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죠.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내용에 사전연구 수요조사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리고 1-3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에 잘못하면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셨거든요.

장미진 위원 :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르코아트너스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3월에 4명을 채용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보면 2억 4,500만 원인데 매개인력 파견직에 7,000만 원, 아트너스에 4,000만 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문모 위원 :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성과를 얘기했을 때 성과에 대한 얘기만으로는 제가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해서 작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성과보고서를 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기부금 말고도 비용을 어디에 썼는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후원에 대한 정당성은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포맷을 갖춰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인 분석을 잘 해주셔서 올해 사업이 개선된,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이나 온라인 쪽을 조금 더 강화하게 된 것이고요. 아트너스 관련은 직원 채용은 아니고요. 현재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활동하는 쪽으로 구성해서 사실 아트너스가 4,000만 원인 것은 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공유해서 사업으로 환류하는 역할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매개인력 채용은 사실 올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

실 파견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예술가의집에 1명 파견직으로 채용한 것 외에는 이후 계획은 없고 실행 예산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조정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조정된 안을 올려야죠. 정정을 하세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소위원회에서 실행예산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술가의집에 대해서요. 47쪽에 보면 예술가의집 공동기획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우스콘서트’ 하고 ‘살풀이연구소’가 있네요. 이것의 결정 과정과 살풀이연구소가 어떤 것을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약간 대중적인 강좌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뭔가 공고를 내서 대관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살풀이연구소 운영주체가? 살풀이연구소가 있나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그 부분의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예술인력양성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예술후원·홍보센터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2024년 주요 실적에 공간별 대관건수가 쪽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예술가의집이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공간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문예위 예술가의집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로의 접근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대관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하고 좋은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예술가의집에서 저렴하게 공간 대여를 하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서비스적 차원의 성격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예술위 직원들이 서비스의 질을 조금만 감안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저한테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충분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계속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심지어 문제제기를 한 사람한테 “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예술가의집이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예술인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공직자인데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놓았는데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자들이 편의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듣

잘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받아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1123호 2025년 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원 예술기록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기록원도 내내 운영은 계속 되어 왔는데요. 올해 의결안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2쪽을 보시면 기록원 운영계획안은 첫 번째 예술기록물의 수집과 등록, 두 번째 예술기록물의 공개와 활용 등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을 보시면 (2)번에 사업개요가 있고요, 1번에 예술기록물의 수집과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과제는 중요 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장에서 기록을 수집할 경우에 예술사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전 분야의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공연예술종합 등 25개 컬렉션에 올해 수집부터 정보공개까지 컬렉션 구축 범위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지금 신규 수집으로는 시각예술 분야의 국전, 1949년부터 1958년까지의 기록인 것이고요. 연극 분야에 윤석화 선생님의 기록, 그다음에 무용 분야에 무용가 박금자 선생님에 대한 신규 수집이 예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록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기록들이고 올해 컬렉션 정리 등록 기술을 통해서 공개까지 할 계획인 대상의 범위들을 목록화 한 것입니다.

올해는 총 20개의 컬렉션을 정리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앞서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구술채록 사업과 공연영상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채록 사업은 올해 5차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생애사·주제사 구술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구술채록컬렉션에 대한 활용확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생각하고 있는 생애사 6건, 주제사 6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학 분야의 김우창 선생님, 시각예술 분야에 황용엽 선생님, 음악 분야에 백건우 선생님, 연극 분야 서연호 선생님 그리고 무용 분야에 김화숙 선생님, 대중 분야 신중현 선생님입니다. 섭외가 완료된 분이 있고요. 시각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분야만 현재 섭외중에 있습니다.

주제사는 음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취주악단의 전개라는 주제로 “1950~70년대 고등학교 밴드부와 군악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현재 구술자를 거의 후보군에 대한 섭외까지 다 완료를 했고 예비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29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해서 구술채록컬렉션 운영사례를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영상화 사업입니다.

올해 42건의 공연영상화 촬영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인터뷰 기록을 통해서 공연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연차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생산된 기록물들의 공개와 활용 확대를 위해서 플랫폼 다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력을 해서 소장하고 있는 공연영상 3건을 수요극장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술의전당과 서울농학교와도 협력을 해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많이 선보

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국립아시아전당과 KBSN을 통해서 소장 기록물들을 선보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로 공연영상을 온라인으로 풀버전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올해 특히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현장 단체들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작물의 활용 확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구조도는 중간 굵은 표시를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작년까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수집파트, 등록파트, 서비스파트로 나뉘져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장르편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한 기록에 대해서 서비스 하는 문제까지 장르별로 아예 나뉘서 소장기록물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개별 장르별로 흩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작업 매뉴얼을 만들면서 장르별 특성을 살리면서도 소장 기록물을 빨리 공개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라는 범위도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 공개해서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아직 등록은 다 안 되어 있어도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고 소장 기록물의 홍보 가치를 소개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로 예술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핵심과제는 기록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기록관리에서 데이터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픈에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등록했고 공개를 통해서 이 기록들의 기록에서 데이터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기록원의 소장 기록물들이 다양하고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픈을 보시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장 기록물들의 디지털 큐레이션 방안에 대한 모색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했으나 공개하고 있지 못하는 메타데이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록물들의 메타데이터를 조금 더 정돈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매번 신규로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이라는 하이픈 부분을 보시면, 검색 기능을 강화해서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 기능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소장기록물 중심 이용자 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할 텐데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심으로 계속 운영 상황을 개편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수장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열람실에서 보시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한 기록물들은 일부라도 실제로 직접 원본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전시 코너를 만들어서, “원테이블” 이라고 해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원본들을 코너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이분들이 보시고 나서 예약열람시스템을 통해서 소장 기록물들을 보실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작년에 시범으로 르네상스 음악감상실을 주제로 선보였고요. 올해부터는 3편을 운영해서 정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자 통계 종합분석입니다.

도서관에서 기록원으로, 그리고 수장고 구성에 따라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많이 선보이기 위한 이용자들의 수요 그리고 서비스 방침도 이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 운영해 왔던 서비스 성과 지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여기에 맞는 서비스지표 개발과 점검, 추가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람서비스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닌 것을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열람절차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양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 간소화를 해서 이용자들이 간편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관리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들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열람콘텐츠의 일환으로 하단에 보시는 2가지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은 대상 자체가 창작자들이세요.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술기록관리 실무기초교육 프로그램은 상당기간 진행을 해 왔고요. 중단이 되었다가 2023년도에 온라인으로 전면 재계를 해서 기록 관리의 실무와 이론을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나 전공을 못 하신 분들의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입문, 심화, 탐방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총 39억 원에 현장예술인인력육성사업으로 6억 원으로 소장기록물 정리 등록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컬렉션 구축 사업이라든지 기록원 팀 내의 인력이라든지 수장고의 기능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통예술 쪽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전통예술 분야는 무용 분야와 음악 분야, 전통분야에 걸쳐서 있어요. 그 안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전통예술 쪽으로 그 장르를 봐서 했을 때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겹쳐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 부분만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균형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왕치선 위원 : 지금 기록원의 작업은 저도 굉장히 옛날에 몇 번 참여를 해 본적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초기 선생님들께 많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시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애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구술채록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속도가 자료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속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대로 못해 놓으면 당신들이 말씀하시는 기록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록원의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냥 바라는데 전체 예술위원회 예산을 이쪽에 집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미술관 등 많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다른 재단에서 하는 것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틈새를 찾아야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차별화된 자칭 말하는 전국 단위 상위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작업은 어떤 기관에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물론 생색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세대들이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야말로 예술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예산이 다른 분야의 것이 전용이 안 되는데요. 전용이 안 되거나 그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해 달라.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의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줄이면 그냥 줄여지는 것이고 여기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라서 저도 와서 예술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기를 놓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9월과 10월부터 따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하고 제가 별도로 전화 통화를 한 것처럼 서초동에 가서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왕치선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술기록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신적 성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20년 된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의 구술채록을 한 게요. 초창기에는 저희 한예중 예술연구소의 이영미 선생님과 상명대의 이인범 교수님이 구술채록의 토대를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초창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가 원조격인데 그 후에 박물관이나 국악원, 민속박물관에서 구술채록이 생겨나고 우리 정영순 실장님이 계시고요. 전문성에서는 예술기록원이 제가 볼 때 기록의 메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예술가의 기록유산으로 영구의 원천자료로서 굉장히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도나 팩트 체크도 되는 것이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데요. 이게 생애사와 주제사로 나뉘어서, 주제사는 최근에 생겼죠. 한 5~6년 전부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는 대상자들의 전문성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 국립극장에 있는 공연예술박물관, 국악원에 있는 국악박물관 또 문예위의 예술기록원 등의 통합계획이 있어서 파주에 공연예술박물관커뮤니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요. 제가 서초동에 가서 별도 현장을 보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보원 원장님과 공유하면서 이런 상황에 도래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가 어떤 차별화와 특성화로 대응하면서 합쳐질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존재할지 여부는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만나시죠.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갑영 위원 : 57쪽 외부 기관단체 협력 강화라고 있잖아요. 그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인력 교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방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나 꼭 공연예술은 아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끼리 모여서 기록물을 받는데 있어서 현안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대해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특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품앗이 활동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박주호 선생님이 전시를 한다고 하면 박주호 선생님에 대한 구술 기록을 제공하고 국립극단에 가서 첫날 오프닝 퍼포먼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씩 모여서 현안이나 운영되는 사안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 자리고요. 정보교류의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박경리 선생님 운영재단인데요. 박경리 선생님의 사위가 김지하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김지하 선생님이 구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경리 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지하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어마무시 했고 굉장히 어려운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이게 손상되고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될 지를 모르고 있어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서 하반기에 10번 이상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기록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에 인력을 투입했죠. 인건비를 지급하고 중간중간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 분류체계 등을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아이템 단위는 아니지만 분류해서 급한 부분들은 보존 처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연극인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백서를 발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백서까지 발간은 안 되었지만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드린 부분입니다. 구술채록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와 같이 정보를 교류하는 협력체입니다.

정갑영 위원 : 산학협력은 어디입니까?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 안에 한국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수님께서 80년대에 한국에 일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모윤숙, 김동리 등 내로라하는 한국 문인들을 인터뷰 하셨어요. 그게 녹음테이프로만 되어 있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약간의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고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채록을 풀으셨어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채록문 양식이나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어를 어떤 식으로 채록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뒤에 초벌채록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원본 기술은 기록원에서 추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한국학연구소에서 책을 발간하고 그때 저희 기록원에 기증해 주실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저작권 문제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구소 측에서 하실 거고요. 일단 원본 소스를 받고 보관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책을 낼 때 아마 유족분들의 동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57쪽에 기록원 이용자 수라는 게 오프라인 숫자인가요? 온라인 숫자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온오프라인 모두입니다.

김진각 위원 : 여기에서 오프라인은 몇 명이죠?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온오프라인에 자료 제공건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구분되나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그렇죠. 오프라인은 방문하신 분이구요.

김진각 위원 : 아니요. 비율로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당연히 온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오프라인은 4,000명 정도가 되고요. 온라인은 14만 건 정도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예술기록원이 예술위원회의 주요한 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기재부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과잖아요. 성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온라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오프라인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프라인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나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데이블·원시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사실 오프라인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기는 해요. 예전에 도서관인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늦게까지 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도서들을 대출을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문자 수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포기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현재 예술기록원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수장고 자체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열람실도 없고요. 열람실은 대학로예술극장 한편에 영상열람실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이전할 장소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모색하던 중에 마곡동의 R&D센터에 이랜드 측에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R&D센터 산업진흥법 상에 활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그것을 올 7월에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오프라인상의 열람 공간이나 부족한 수장고 확충 등이 이루어져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 예산을 달라고 하니 예산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추진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이랜드에서 공간을 줄 의향이 있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R&D센터로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땅을 분할 했는데 R&D센터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수장고를 지었는데 그쪽에서 오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쓸 수가 있냐고 하니 관리비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어요. 현재 기록원은 매년 10억 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내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쓸 수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전용될 수 있고 확장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마곡 그쪽에 엘지아트센터도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쪽은 안 주죠.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이랜드 쪽에서 그 공간을 준다고 하면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너무 좋아요.

성기숙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로가 한국 공연예술의 메카고요. 향수가 있는 분들은 뭐냐하면 예술가의집과 문예위는 사실 80년대에 옆의 화장실 가는 공간이 옛날에 자료관이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리고 요새 라운지로 잘 활용하는 1층이 작지만 전시관이었던 것을 아시죠? 저도 거기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학로에 오시는 옛날 향수를 가진 분들은 문예위가 어디가 됐든 규모가 작더라도 자료를 보고 정답을 나누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랜드를 주면 좋고 아니면 수장고가 부족하든 문체부 쪽에서는 파주 쪽에 부지가 있으니까 수장고를 준다고 하면, 예술위도 포화상태잖아요. 앞으로 더 기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확보도 장기적으로.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록원의 수장물들은 연구자들이 오면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안건은 제1124호 2025년 미술관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아르코미술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이 안건은 지난 2월에 한번 상정을 드렸는데 시간상 논의되지 못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사전에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5페이지 붙임자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미술관의 시설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아르코미술관과 원서동에 있는 인사미술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르코미술관은 전시실이 1층과 2층 전시실 2개와 공간열림이라는 1층에 있는 프로젝트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미술공간은 총 3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방송발전기금 활용 임차 건물로 올해 6월 30일 임차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는 2024년도 주요 성과이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아르코미술관 올해 핵심과제와 추진 방향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르코비전 2030을 보완하면서 극장과 미술관 시설은 아르코창작플랫폼 특성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이 되었고요.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창작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공공성과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지원사업들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사업들을 연계하고 특히 미술관은 현장 일선에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원사업과 현장 연계를 해서 성과 확산을 하고 다양한 미술계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예술위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이라든지 주체지원의 다년간 지원이라든지 국제교류사업 혹은 청년예술가지원 사업들을 미술관을 통해서 소개하고 전시나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거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들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미술관을 활용하도록 수립하고 있고요.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아르코데이라는 아트페어와 미술축제 기간에 예술가들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관객들을 개발하는 예술로 소풍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이관

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해서 K-아트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8쪽의 사업 연계 구조도를 보시면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나 기획사업 등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서 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혹은 대내외의 기관과 내부 팀들과 기획협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지가 구조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미술관의 연간 사업이 워낙 여러 가지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총괄표로 일정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총괄표를 보시면 2025년도 아르코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전시 그리고 퍼블릭과 다양한 창작자나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공공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6월에 종료가 되는 인사미술공간. 줄여서 인미공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한 국제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되 주요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전시와 공공프로그램 위주로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의 전시입니다.

전시는 모두에 미술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르코미술관이 타 미술관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사업들을 연계해 주고 현장 예술가들이 미술관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이들이 미술관의 전시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후속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시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협력 전시 범위를 확대하였고요. 그 방식도 기존에는 그냥 창작산실의 우수전시를 가지고 와서 전시를 그냥 해 준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전시를 하면서 저희 미술관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과 기획력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산실뿐만 아니라 비평지원 등 프로그램도 함께 협력하고요. 최근 3년 동안 시각예술지원 사업에서 배출된 활발한 중견 작가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전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도 전문가로 선정되신 관장이 계시고 큐레이터들이 있지만 이들과 함께 외부의 기획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현장의 기획자들과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귀국 전시라든지 아까 인미공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배출했던 우수 기획자들을 모시고 전시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추진계획 및 일정표를 보시면 이번 일요일에 마쳤는데요. 작년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귀국 전시가 성황리에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이번 4월에는 인미공이 종료되면서 여기에서 배출되고 인미공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한, 지금은 미술계를 이끌어 가는 주요 기획자와 주요 작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전시와 출간과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름에는 시각예술창작산실에서 선정된 우수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이 전시는 2025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심의를 할 때 이미 심의위원들께서 후보군을 선정해 주셨고요. 이 후보군 안에서 미술관과 기획자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조주현 기획자의 ‘드립핑 스테이션’이라는 가제의 전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사실 9월이 대한민국미술축제 기간인데요.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키아프가 펼쳐지고 문체부에서도 이 시기에 아트페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엔날레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술 관련된 전시들을 일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술축제를 하면서 그중에 큰 포션으로 예술위원회에서는 아르코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코데이의 주요 전시로 ‘아르코 하이라이트’라는 가제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전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저희 예술위원회의 최근 3년간 지원을 했던 사업들 중에서 특히 우수 중견작가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레지던시 연계 성과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여하는 참여작가나 예

술가들이 이 전시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그 다음 전시로, 그러니까 다른 전시로 초청이 되기도 하고 혹은 수상을 하기도 하고 해외로 초청되기도 하는 후속 성과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술관의 전문성을 통해서 조금 더 확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도 마찬가지로 작년 관객이 제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전시에 대한 부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관객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객참여 확대를 도모했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프로그램입니다.

공공프로그램은 크게 보시면 협업형 프로그램과 이용자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과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나 프로그램에서 파생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코데이는 키아프와 프리즈서울이 개최되는 9월 첫 주에 국내외의 모든 미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술축제기간이고요. 이때 아트페어에는 시장 중심적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위원회에서 기반을 조성하고 신진작가라든지 실험성을 가진, 다양성을 가진 작가들을 소개하고 프로모션하고 아트페어까지 연결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르코데이 기간에는 미술관과 예술극장까지 함께 활용해서 청년예술가들의 프로모션을 하고 극장 무대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네트워킹 파티를 하고 코엑스 아트페어 현장에서는 프로모션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투어라든지 참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것이 디벨롭이 되면 어린이 전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슨트 투어는 대상 특화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미술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간에 사업성과를 함께 일별해 보고 종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간은 종료되더라도 인미공에서 많이 추진되었던 신진예술가를 양성하고 실험성 있고 다양성 있는 미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비평 담론을 했던 부분들이 미술관의 전시와 프로그램 그리고 차후에 시각예술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종료 기획전시를 4월 말에서 6월까지 진행하고 출관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는 소장품과 아카이브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품은 현재 수장고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3점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일부 조각 작품들은 골프장에 대여가 되어 있고 회화 작품들 일부는 감사원이나 통일교육원 등에 대여가 일부 되어 있고요. 위원회 시설 내에도 여기 저기 회화 작품과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아카이브실이 있어서 미술관이 생산한 아카이브 기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어나 관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기존에 국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던 교류협력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미술 사업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전문성이 접목되어 개선하기 위해서 미술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미술관이 담당하게 되었고요. 전년도에 올해 건축전에 대해서는 위원회 보고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술관으로 이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미술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한국관을 운영하는 커미셔너의 역할. 후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올해 많이 개선하고자 하고요. 올해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건축전입니다. 올해는 건축전이고 내년은 미술전입니다. 그래서 건축전이 5월에 개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관 전시를 잘 운영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개요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전체 본 전시의 총감독은 ‘카를로 라띠’ 라는 감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 예술감독은 작년에 선정돼서 정다영, 김희정, 정성규 등 3인의 감독이 선정되어 있고요. 제목은 ‘두껍아 두껍아 집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한국관 30주년 기념전을 했는데 올해 건축전에서도 건축전 3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주제로 이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축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77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와 함께 내년도 미술전의 예술감독 선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위원회 회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시설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술관을 항상 이용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시설의 노후 부분이 있어서 본격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요. 아마 여기에 들어오실 때 조금 불편하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시장 사이 계단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와 수리를 하면서 관객들의 접근성도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보시면 미술관 운영의 전체예산은 22억 3,700만 원이고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에서는 10억 6,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우에는 예술감독 지원금이 6억 원입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의견은 아니고요. 김미라 위원님께 우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르코미술관이 여러 전시관 중에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늘 왔다갔다 하면서 궁금했어요.

김미라 위원 : 워낙 아르코미술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게 굉장히 로망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술관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공간도 많고요. 사립미술관, 국공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 굉장히 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만 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시들을 1년에 한 두 번씩 꼭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도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술관장님이 계시면서 “이 전시는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전시들이 1년에 한 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왔다 갔다하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1층에 카페가 있다가 나가고 무슨 전시를 하나 보면 비어있기도 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미술에는 문외한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처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동안의 역사는 별 관심이 없고 현재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인가라고 하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 사업 등 모든 것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그것을 확장해야 되고 그 부서에서는 부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크게 키우는 게 생태계에 늘상 있는 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용기가 있다면 진짜로 여기에 있는 미술관을 다른 것으로 쓰고요.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필요하다면 짓든지 아니면 이제는 세월이 꽤 되었기 때문에 미술관은 개인미술관이나 사립미술관들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예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손을 떼겠다. 대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미술적인 감각은 없지만 시설에 대한 것을 보면서, 실은 우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에서 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계에서 누군가 홀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홀에 대한 열망의 강도는 대단하거든요. 아마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악 쪽 장르의 홀을 우리 예술위원회가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술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것

도 저는 어떻게 싶습니다.

김미라 위원 : 사실 관장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미술관 자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오랜 시간과 공간이 갖고 있는 아우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현실은 뭐를 하나 고치려고 해도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하거나 벽에 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예산조차도 어려운 공간이라는 어려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아마 관장님이 말씀을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떼고 새로운 것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떼고 하자가 되면 되는데요. 떼고 하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각예술 쪽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과 올해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과 전개되는 전시공간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의 위상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새로운 전시관이 계속 생기고 시설 확충이 되고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에서 전시를 했다고 하면 자랑할만한 최고의 전시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똑같이 계속 기획전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과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기획전을 최소화 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각예술 쪽의 지원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까지 연계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늘도 보고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각예술 쪽의 공모사업, 해외레지던시사업,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인바운드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연계가 안 돼서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선발해서 전시까지 해 주고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까지 연계해서 전시를 만들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편이 될 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시공간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에 연장선상에서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영화를 찾기에는 공간 자체가 일단 협소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너무 갈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아까 우리가 다른 장르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향후 우리의 지원체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왕치선 위원 :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없애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고 가면서 안타까웠던 것이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술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라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태리 사람들의 문제가 너무 좋은 과거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선조에게 묶여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도 다른 기관과 달리 탄생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묶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라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의 굉장히 큰 공모사업 중에서 좋은 공모사업들과 하드웨어 공간을 연결해서, 사실 전시가 좋으면 공간

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니깐 많이 봐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아르코예술극장이 50년이 되어 가고 리뉴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르코예술극장과 이 공간이 1세대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치선 선생님이 굉장히 용기 있는 질의,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1층에 난다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죽어있는 공간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연극계나 우리 공연예술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쪽에 공연예술박물관. 여기 예술기록원이 갖고 있는 좋은 자료들도 많은데요. “박물관으로 미술관을 사용하면 어떤가?” 라는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요.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미술계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해서 차후의 문제인데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 하에 TF팀이든 소위원회든 구성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번에 경영전략소위원회를 통해서 관념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다고 하면 실천프로그램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합의하에 논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니니까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25호 2025년 아르코글로벌 예술창작실 운영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문제점이 뭐라는 것도 실무진에서 숙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 당시 보고를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된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주 미술관운영팀장 :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배경에서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예술위 국제사업이 모두 아웃바운드 해외파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레지던시 시각예술 같은 경우도 23개의 레지던시 약정을 통해서 파견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 예술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한국내의 K-아트에 대한 해외 예술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 예술에 대한, 인바운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르코미술관의 플랫폼 기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술후원인의 밤도 작년 10월에 미술품 경매를 통한 후원금 조성을 할 때도 이런 국내의 인바운드 레지던시와 미술교류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 경매후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일정 정도 조성이 되었고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부족한 예산은 시각예술창작실의 공간지원의 잔여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간을 후원하는 ‘평창동 아뜰리에’에서 진행하면서 주관단체가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박물관포럼’이라는 서울 도시에 유사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부합된다는 판단하에 선정 후보로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이 단체에 대한 설명과 단체가 보유한 역량에 대해서 87페이지에 기재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에 이어령 전 문화부 초대장관이 창립을 하셨고요.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레지던시와 축제 또 여러 가지 멘토를 모시고 강의프로그램이나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는 그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서 참고를 하시되 입주 기간의 경우가 당초 4월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만약 의결해 주시면 5월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인바운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레지던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프로그램이 구체성이 없고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여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운영레지던시와 차별화된 차별성은 첫 번째로 예술위원회가 운영하게 된다면 예술위원회 아크미술관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문예기금 사업에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들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23개 기관과 약정을 통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파트너 기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작가들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주요한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작가들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결과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 운영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에 아트페어 프리즈와 키아프와 연계해서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쇼케이스 홍보를 추진하는 부분은 국내 다른 기관들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만의 차별성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일반적으로 국공립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체류를 하고 나서 오픈스튜디오를 하루 정도 개방하고 와서 네트워크를 하고 작품을 잠깐 보여주는 정도로 그치지만 예술위원회는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미술관에서 기획, 성과보고, 전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프로그램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K-아트 투어’는 대한민국미술축제와 유관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비엔날레 방문과 관계자 미팅 등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화를 하였고요. 비평 세미나, 맞춤형 멘토링, 오픈 스튜디오, 아트페어 쇼케이스, 기획전시 등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크미술관의 전문가들과 인력 풀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나 후원인의 밤에 참여한 작가들의 멘토링이나 문체부나 예경, 비엔날레, 국내 미술관, 관계자들, 해외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들로 보다 풍성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기대효과 부분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도 확대하고 참여하는 창작자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K-아트를 확산하고 시각예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여작가들이 왔다가 그냥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시를 통해서 이분들의 후속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미술장르만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이 부분들이 성과로 인정을 받으면 예산 증액 등을 통해서 다른 분야들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회의 때 후원금과 잔여예산으로만 했을 때 지속 가능한가?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도 후원인의 밤은 개최를 해서 후원금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되 후원금은 사실 지속가능 여부에서는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별도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교류협력팀에서 진행하면서 지역소멸과 연계된 부분과 다른 국제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과 통합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을 더 반영해서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드린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사실은 지난번 2월 회의에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고 보류 안건으로 되었던 건데요. 많이 수정·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요. 그리고 제목도 지난번에는 ‘해외레지던스’ 이랬는데 보니까 ‘아르코 글로벌 예술창작실’ 이라고 해서 바꾼 게 와 닿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질문을 했던 것이 “왜 공모를 안 하고 지정처럼 되었는가?” 와 “장소 공간이 평창동 아뜰리에고 주관업체가 자문 박물관포럼이냐?” 인데요. 지금 설명은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뭐냐 하면, 사실 문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혹시 해외의 작가들을 초청할 때 창작 공간, 숙박, 항공료, 체재비, 작품제작비, 향후 아르코미술관에서 기획전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작가가 해외에 나갈 때도 혹시 이런 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아르코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작가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판매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전시로 끝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일단 답변해 주세요.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먼저 성기숙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난 회차 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작가가 해외로 아웃바운드로 나갈 때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술관 보다는 국제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아웃바운드 레지던시 사업들이 있는데요. 레지던시 기관의 약정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우들은 있습니다. 보통은 거기에서도 작업실을 지원해 주고 항공료 등은 문예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작가의 수준이나 레지던시 기관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쪽에서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픈스튜디오와 후속 네트워킹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다양한데요. 본격적으로 기관 대 기관 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저희가 전시를 하면 해외에서도 전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지만 아까 다양한 레지던시 약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관들과도 추천이나 오픈콜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차후에는 저희한테 들어온 해외 작가들이 있다면 저희 작가들이 그 권역의 다른 유관기관으로 가서 전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짜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효율성을 기하자면 주관단체하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주관은 ‘자문박물관포럼’ 이고 장소는 ‘평창동 아뜰리에’ 인데요. 이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나요?

정병국 위원장 : 장소 선정에서 공모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호응도를 끌어올리고, 관심을 끌어올리고 다른 레지던시 사업과 차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재 보내는 것만 23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일반화가 되어서 레지던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했지 인바운드로 주체적으로 하는 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것과 제주도에서 현대카드가 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가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광주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거의 대부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는 지역을 쪽 순회하면서 가서 확인도 하면서 어떤 데가 작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가를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를 해 주거나 또는 컬렉터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것의 조건으로 작년에 프리즈 한국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프리즈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즈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일차적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의결해 주시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프리즈 때 여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그쪽에 전시를 할 수 있게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는 서울 근교에 있는 데를 먼저 찾았는데 거기에서 하면 거의 안 온다는 겁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창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선호도가 푹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주면서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작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외에 하게 되면 왕래하기도 어려운데 마침 자문밖 포럼에서 운영하는, 종로구와 함께 운영하는 레지던시 사업이 이 건물 내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여기가 가장 합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또 없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문제 때문에 다른 데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걸고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들어올 수 있는가? 대상이 없어서 그러면 그 절차를 꼭 밟아야 되냐고 했더니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은 해 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또 이것은 처음부터 지난 후원인의 밤을 할 때에 작가들을 섭외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레지던시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멘토 역할까지 해 주시겠다는 협의를 한 다음에 작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업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후원금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레지던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산이 아닌 겁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게 된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위원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숙소도 주고 항공료도 주고 체재비도 주고 작품제작비 등도 다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애절하게 이분들을 모셔야 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미라 위원 : 저희가 아웃바운드 레지던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지원을 합니다. 나가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작가들이 “거기에는 꼭 다녀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성공한 케이스고 거기에는 이런 아트페어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그런 조건을 나중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바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파리가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의 중심축이 된 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된 인바운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예 공간을 각 나라한테 또는 예술단체한테 그냥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그 사람들이 또 작가들을, 그것도 여러 장르별로 작가들을 지정해서 한 번씩 다녀오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파리를 근거지로 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한 번쯤 다녀와야 되는 곳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처음이지만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했을 때 좋은 작가를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작가 누가 왔다고 하면 그다음에도 전통이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 “왜 시각예술 분야만 하느냐?” 그런데 시각예술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학도 지금 남이섬에 호텔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아동작가를 오픈콜해서 호텔을 후원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딱 공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이프캠프를 통해서 청년예술인들, 다원적으로 공연도 될 수 있고 시각도 될 수가 있는 분야에서

선정이 되면 올해부터는 레지던시로 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현대미술 분야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나요? 그러니까 작가가 서울시내에 있어야 된다.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사람들을 초청하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선호도를, 그러니까 레지던시를 하려고 가는 사람은 많지만 아무나 받아서는 효과가 없으니까요. 처음 하는데 좋은 조건. 그 사람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면서 “저기는 꼭 가고 싶다.” 라고 해서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김미라 위원 : 사실 평창동 레지던시의 위치가 교통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인서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른 교외로 나가는 것은 아예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요. 그런 것에 비해서 위치가 조금 좋다는 것이고요. 레지던시에서 항공과 숙박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틀이면 파리의 씨테 같은 경우에도 숙박이 가능한 공간에서 머물고 기본적으로 가고 오는 항공비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은 월 50만 원 정도의 체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김미라 위원 : 예, 그것도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시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해 놓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숙박 공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40세 미만의 현대미술 분야의 작가인데요. 그런 조건과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지방은 못 하겠네요.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주도도 하고 있고 광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작가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아직 그러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비자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오게 되면 3개월 만에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트워킹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한국 미술을 공부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 미술계의 트렌드를 보고 싶은 것을 우리가 네트워킹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머무르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가능한 거죠.

성기숙 위원 :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취향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의 산 꼭대기에서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화제를 떠올릴 수도 있고 무인도 섬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김미라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은 인서울 평창동.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중요한 게 가치 창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해외 권역별 미술전문가, 국내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보니까 지구촌이 다 있네요. 선정을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아르코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광주비엔날레로 연계해서 후속으로 이어진다거나 아시아 권역

과 연결이 된다거나 하면 아르코 사업이 정말로 가치가 만들어지니까 후속으로 연계되는 것도 구상을 해놓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레지던시와 차별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아트페어. 우리나라 아트페어와 연계해 주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작업을 하려면 그런 교외에서 한적하고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랬더니 전문가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시내에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치선 위원 :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하러 오시는 것 아닌가요?

서승미 위원 : 작업보다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떼에 참여해서 경험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결과물을 내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무는 동안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예술가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돌아와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바운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쟁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자면 아르코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티켓을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아트 카드’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음악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하는 모든 전시를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지만 해줄 수 있는, 선택은 본인의 자유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더 촘촘하게 제공해 준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공모의 공연에 대한 티켓을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숙 위원 : 다 퍼주는데 가치를 만드시라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것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에 나가서 보면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해서 예산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후원금을 전제로 해서 작가들을 동원해서 했던 것인데요. 그게 충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장미진 위원 :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가를 선정할 때요.

정병국 위원장 : 작가선정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장미진 위원 : 그래도 대충 초점을 두고 보려고 하는 게 없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장미진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아이오와 문학레지던스를 경험하고 온 문보영 작가의 작품집을 읽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레터를 보내서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이해가 돼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를 많이 해 주셨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 우려와 걱정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향후 보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11건의 보고사항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실무진한테 이것을 다 보고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꼭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로 5건을 추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5건을 우선 보고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사안별로 해서 의견을 드리고 다음 차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25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지원 유형 추진 경과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지원 유형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개별지원 방식의 한계를 타피하기 위해서 축제 간 연계나 공동 홍보 브랜드 축제 시범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통합지원 유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추진 경과는 2024년도 3월에 현장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요. 해당연도 9월과 10월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공모계획과 결정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유형에 대해서 5억 원 정도를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단에 대한, 통합지원 유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공모결과 전체적으로 32개 단체를 선정했을 때 통합유형에 참여를 해 보고 싶다는 단체가 20개 있었습니다. 다만, 1월과 2월에 다시 재확인한 결과 5개 단체는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에 다년간 지원단체 중에 3개 단체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최종적으로 18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1월과 2월에는 장르별 위원님들과 함께 외부 위원님들을 추가로 초빙해서 8인이 조직위원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의 회의를 했고 첫 번째는 PM의 역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두 번째는 어느 분을 모실지에 대한 순위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1순위로 송승은 감독님을 모셨고 2순위로 김도연 아이디어랩 대표로 홍보전문 브랜딩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2인을 모셨습니다.

심사를 할 때 조직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전문성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정 장르에 매몰되지 않고 적어도 예술행사, 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서 모셨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그간 송승은 감독님을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고 아이디어랩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의사도 반영해서 이렇게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이쪽 업체 쪽에 별도로 지정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도연 대표님이나 송승은 감독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3월 27일 어제입니다. 어제 조직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오후에는 18개 참여단체들간 협의체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 발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참여단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다 받았습시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호응도가 높았고요. 예상했던 대로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각 18개 참여 주체별로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어제 제가 협의체에 참석을 해서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통합 지원이 아니라 통합홍보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지원이라고 하면 내용적으로도 장르 간 협업이나 내용적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통합홍보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한 단체들도 지방이 적고 서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렇게 되면 홍보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홍보지원의 효과라는 게 사실 서울에서 홍보하고 홍보의 결과물이 지방에서 공연한 단체들한테도 가야 되고 관객이 늘어나야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해야 하고요. 단체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동안 관객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5억 원을 들여서 통합홍보를 하는 건데요. 통합홍보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 사실 언론에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언론이 얼마나 받아주고 기사화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취지가 여기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 홍보. 그러니까 관객이 안 들기 때문에 관객이 어떻게 하면 공연을 많이 보게 하고 활성화 시킬까 하는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하고는 별개로 어떤 관객이 작년 대비 늘었다는 게 정량화가 되어야지 통합홍보의 효과가 입증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성 홍보는 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홍보는 지양하고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덥고 야외에서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 : 이게 홍보인가요? 홍보라면 PM이 홍보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전체적인 총괄PM은 예술제 축제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경험이 있으시고요. 특히 같이 일을 하는 아이디어랩은 사실 홍보 브랜딩 전문업체이기도 합니다.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통합브랜드에 대한 사업홍보와 개별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홍보와 마케팅 중심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통합하는 의미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아실 텐데요. 지난해에 서너 차례의 공청회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합해 보려고 했는데 당의성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보려고 개별적으로도 만나보고 이렇게 팀으로도 만나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묶어가고 있는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연중” 그렇듯이 그 일환으로 “그러면 기간이라도 일단 묶자.” 그런데 “묶어놓기만 하면 뭐하냐?”,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별적으로 맡겨 놓으면 더 하죠. 축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일단 통합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쪽을 우리가 지원해 보자. 그래서 관계기관장과 논의를 한 결과 올해는 이런 단계에서 하자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김진각 위원님이나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홍보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전년도에 개별적으로 했을 때 관객의 수와 통합홍보를 했을 때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처음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129쪽에 통합지원 유형 참여 사업에서 쪽 나오고 결정액이라고 있는데 결정액은 될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결정액은 저희가 공모결과에 대한 개별 신청에 대한 지원결정액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단체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액수를 다 해서 총감독을 정하고 그 밑에서 컨셉을 잡고 기획을 잡은대로 해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단체가 하는 것은 다 인정해 주고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액이 이루어졌고요. 자기들이 작품 구현하는 것으로 예산을 준 것이고요. 그 대신 그 이전보다 예산 액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홍보와 마케팅은 이쪽에서 통합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 봐야 효과도 없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기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를 꼭 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참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축제로 묶으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장르위원들이 조직위원으로 들어가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경에 정창호 공연예술팀장님이 처음 공연예술제를 묶으면서 처음 설계는 야심찼습니다. 에든버러나 아비뇽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고자 하는 포부와 야심이 있었는데 개별지원, 통합지원을 받고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아마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승은 PM, 어제 조직위원회에서 후보들을 놓고 최상의 전문가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통합지원, 개별지원으로 들어왔고 4개 장르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30년 된 것과 20년 된 것, 그다음에 김진각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에서 주최하는 것과 지역도 있고 장르도 여러 가지고 성격도 콩쿠르나 경연대회 성격도 있고 순수 창작적 성격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통합 브랜딩 하는 것이 난제인데요. 그래도 어제 송승은 PM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다고요.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할까?” 저는 사실 맡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최상의 것을 만들어왔어요. 맡아줘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용분야 현장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공모를 통해

서 들어온 것도 있고 문예위 지정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향후 공정성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정창호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모집하면서 무용분야는 다년지원으로 되는 ○○○○○○가 8,000만 원을 다년지원으로 받는 것인데요. △△△△△△△△라고 해서 □□□□□□□□에서 6개 사업을 4개 단체가 소위 말해서 캡을 씌워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에 여지가 있는 문제고 3월 18일 무용분야 현장업무보고 토론회에서도 무용 전문 패널께서 이 문제를 강조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를, 그때 위원장님도 듣고 다들 들어서서 이게 하나의 과제고요. 이것은 지혜를 발휘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심의나 추진과정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기대를 좀 해 보면서 일단 올해는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믿어 보고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하는 거니까요. 조직위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보완하시면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취지에 가깝게 갈 수 있게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이렇게 통합축제 형식으로 행사들을 다 묶겠다는 기본정책 방향이 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문체부의 기본방향이 있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축제라고 얘기를 해 놓고 사람별로 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직별로 축제가 있고요. 그런데 축제라고 해서 국제콩쿠르, 국제축제 등 말은 그런데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부터 시발이 돼서 “왜 우리는 에든버러축제나 아비뇽축제 같은 못 만드는가?” 그래서 단체장과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문체부도 “대한민국은 공연 중” 이라고 해서 묶더라고 요. 그런데 그게 더 시너지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들도.....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정부 방침인가보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적극성을 띠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묶으려고 하니 다년지원을 하는 단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한꺼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있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 단계까지만 해 보자고 하게 된 것이죠.

정갑영 위원 : 7월, 8월도 우리가 결정을 했나요?

성기숙 위원 : 문체부와 차별은, 문체부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묶었고요. 문체부의 “대한민국은 공연 중” 은 무용 분야 같은 경우 80년대, 90년대 기존 작품 중에 명작이라고 되는 것들을 10월에 공연하도록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예위에서 하는 이것보다는 소극적인데 거기는 너무 홍보가 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그것보다 범위가 확대돼서 큰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전담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년지원을 하는 8,000만 원은 사실 행정적 검토에서는 부적격으로 걸러졌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결과정에서, 예를 들어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으면 의결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 포착돼서..... 그런 문제를 때문에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까지 통합으로 가느냐 분리를 하느냐에 대한 의논을 할 때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분야 장르위원이 심의에 참여했을 때 올라오는 의결에서 이런 누수가 있는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의결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작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결 단계에서 배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성기숙 위원 :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타 위원님들이 그것을 볼 수는 없죠.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제 얘기는 의결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체크해 주실 수 있죠.

성기숙 위원 : 제시했구요.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결하기 전에 하면.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결에 참여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보고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추진경과 보고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작년 6월과 작년 12월 2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자로 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업데이트가 된 것만 보고를 해 주세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저희가 총 36개 세션으로 통합세션 7개, 병행세션 29건 그리고 연계행사 4회가 추진돼서 개별 행사 40개가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점심까지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에는 이사회 회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193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해외분들만이고요. 전체 400명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250명 해외, 150명 국내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국내의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와 146페이지는 현재 거의 연사를 100명 정도 초청할 예정인데 90% 정도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IFACCA 사무국에서는 대외비 등을 중시해서 같이 공유해 드린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분이고요. 4월 초에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라인업을 해서 계속 검토하고 4개 국어로 번역해서 4월 중이나 말 정도에는 최종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한국 예술가나 문화예술 관계자 그 다음에 예술 현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도 토대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지면서 더 구체화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이 잘 몰라서 저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 싶어서 했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9차 자료를 봤는데요. 세계총회의 목표가 3가지더라고요. 미래문화예술 로드맵 구상, 국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3가지인데요. 우리가 걸렸던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좁 거리가 있지 않겠나?” 라는 것과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고 문체부에서 장관님이 오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안 간다고 해서 들여다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맞추는 것을 갖다가 아무래도 국내 예술가의 네트워킹의 자리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부분이 얼마 전에는 제가 IFACCA의 이사진과 삶은 소리를 하는 회의를 한번 했어요. 진행을 하는데 ‘보안’, ‘보안’ 이라고 하고 발표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 원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계속 끌고 가서 “나는 이렇게는 못 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서 “IFACCA 총회가 국가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국가의 다양성도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주최국의 의견도 인정해 줘야지 똑같이 한다고 하면 뭐하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하나?”, “우리가 개최해야 될 의의가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참여.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팀장과 협의를 하시고요. IFACCA 실무국과 협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문모 위원 :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보고를 받을 때 일자별로 세션 구성을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거대 담론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술가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고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어떤 사람을 참여시키면 좋겠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주시면 주도는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큰 행사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90개국 400여명 초청인데요. 5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업무를 교류협력팀에서 감당이 다 되실지? 이것도 아웃소싱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실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작년에 통합발주로 PCO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한 명의 직원을 이번 주 월요일자로 붙여 주셨는데요. 솔직히 야근도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8주 밖에 안 남았다.”, “한국에 왔으면 우리를 따르고 한국의 저력은 이것이다.” 그래서 “강론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외부 용역들이 있지만 결국은 인하우스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다 가다가 저희 직원들을 만나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2025년 아르코양상불 운영계획(안) 보고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1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양상블 사업 추진 경과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양상블은 유럽에서 1팀, 미국에서 1팀 등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4년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가 7월에 단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붙임자료를 보시면 인원들의 명단과 상세 포지션 그리고 어디에서 몇 명이 뽑혔는지가 다 나와 있고요. 2024년도 7월에 유럽 권역 10개국에서 46명을 선발했습니다. 11월에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찰스부르크에서 한 번 비엔나에서 한 번으로 창단 공연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미국 동부권 중심으로 한 팀을 더 만들었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동부에서 18명을 선발해서 2월에 뉴욕에서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 양상블에 대한 운영예산은 전액 예술인재양성팀에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기획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획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쳐 드리지 못 했는데요.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그때는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포함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고요. 올해 미국 공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이 미흡해서 누락이 되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르코양상블 운영에 대한 목표는 자료로 같음하고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공연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에 미국 동부 창단식 공연을 마쳤고요. 지금 4월에 6.25 참전용사 추모 음악회에 미국 동부 단원들이 여기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주는 국가보훈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 역대 가까이 되는 행사비를 다 지급하고요. 아르코양상블 단원들의 출연료만 제공을 해서 특별무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는 유럽 단원들이 비엔나 한국문화원과 기획사업을 해서 ‘여린박콘서트’ 라는 기획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마찬가지로 보훈부와 서초문화재단과 같이 3개 기관이 공동기획으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를 7월 2일에는 베를린, 7월 5일에는 런던에서 2회 공연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아르코양상블 유럽 단원들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찬가지로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가 뉴욕 뉴저지에서 한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비엔나 한국문화원 협력기획으로 작곡가시리즈로 기획공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문체부 국제문화사업과와 ‘투어링 코리아 아트’ 라는 기획프로그램을, 문체부에서 투어링 공연 비용을..... 기획프로그램을 사주는 비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국문화원 중심으로 투어링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협조를 받기로 해서 아마 미국의 문화원 2곳과 유럽 문화원 2곳을 돌 수 있도록 국제문화사업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정식으로 순회를 할 수 있게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에 예술인재양성팀 일반수용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은 예술나무 후원금에서 후원을 받기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현장에서 음악 쪽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유학을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있는, 음악 쪽은 대부분이 해외 유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국내 교육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지금 국내과와 해외과 사이에 엄청난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다. 해결방안을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작년 초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반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선발을 해 놓고 그 뒤에 대통령 순방과 맞물려서 현지에서 창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작년 11월에 창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목적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이나 대사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항공료가 더 비싸고 출연료는 적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유학 나가있는 친구들로 어느 정도 선발해서 팀을 꾸려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러한 행사에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도 세이브가 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번 공연을 하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무대의 경험을 계속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차관이 해외 홍보보장할 때에 그때 같이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미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내용은 몇 번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언급은 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다만, 동부 발대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것은 처음에 4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월에 해외출장이 미술관 업무 위주로 잡히면서 간김에 하면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계기성으로 창단도 같이 하자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그렇고 향후 활동 내용은 이미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국가 기관인 보훈부에서도 현지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데려가게 되면 억 단위까지 가깝게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렇게 하니까 4,000만 원 정도로 2차례 정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협업을 해서 부처 간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단하고 이런 공연 과정에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현지에 있는 기획자나 지휘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레지던시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 저는 위원회에 처음 와서 심의위원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공정하신 분을 추천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무 생각이 없이 했다가 담당자로부터 “그게 아니라 인력 풀로부터 추천을 해야 하고 1.5배나 2배수로 하고 뽑기를 해서 한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데구나 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심의의 처음과 끝을 들어가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3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위원회라는 곳은 무엇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 곳이라는 게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 가 많다가 어떤 것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결정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직원이 놓쳤기 때문에 되었다고 했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의결까지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혹은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그래도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도 저는 시작과 끝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제로 위원회에 별로 필요가 없거나 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파트에서 다른 문제는 마구 돌아가고 있고 내가 결정하거나 의결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제공 되어진, 어떤 때는 당일엔 서류를 주고 오늘 안에 전자서명을 하라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도저히 이것에 대한 종을 잡지 못하겠어요. 열심히 할 마음은 있는데 어떤 때는 메일로 던지고 오늘 안에 하라고 하고 안 하면 안 된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일이 다 진행되었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명색이 음악이라고 하니까 밖에서는 나한테 묻고요. 좋은 소리를 할 리는 없죠. 그냥 물으면, 아직도 제가 들어와서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요청하는 것만 의결하라는 대로 하고 가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를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대한 의견 중에 ‘위원회 운영제도 및 개선’ 이런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제도뿐만 아니라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진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해 주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빠르게 돌아가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일부러 안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인지 사무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상임위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것을 따라가려면 거의 출근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급하게 오는 것들을 소화하면서 의견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다가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옹호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버거운 부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건 한 건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상임위원의 역할 범위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진지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왕치선 위원 : 실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이런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을 바꾸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는 몰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속해 왔고요. 사무처도 대단히 짜증이 나는 게 3년마다 새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답을 또 해야 하고요. 새로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르는 악순환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서로 간의 오해만 쌓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제일 좋은 것은 위원회를 차라리 해체하고 위원장 시스템으로 가면 모두가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는 국장님인지 실장님인지 만나서 “그만 두고 싶다.”, “이렇게 바보 같이 시간을 보낼 걸 뭐라고 있느냐?”, “오며 가며 본인들이 자괴감만 드는데 왜 운영을 하느냐?” 라고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오면서 가면서 “다음에는 오지 말까?” 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문제가 크고 몇 년 전에 하셨던 위원님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기로는 저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에 출근을 하고 공부를 해서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요. 8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하기도 참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사실 우리 위원이 7월 31일자로 문체부 장관님한테 임명장을 받고 8월 1일부터 직무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응모할 때부터 직무수행 공고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직무를 하겠구나.” 라고 응모 신청을 했고요. 공개 검증을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편람을 주셨어요. 저는 다 숙지를 했고요. 1973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선배 위원님들을 따라 가야지.” 라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건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많은 규정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봤거든요. 그랬을 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규정과 정관예요. 모든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시행하는 것은 규정과 정관과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자괴감과 회의감이 있었고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링거를 5병 맞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만 해도 제가 사무처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위원은 자료 요구권이 있고 감사청구권도 있고 우리의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요. 사무처는 부담스럽고 괴로우시겠지만 많이 협조를 하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는 지원만 하죠. 그리고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가 1973년에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멘트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문화예술위원회의 변곡점은 2005년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민간자율기구로 독립된 기

구로 2005년에 전환되어서 저희가 민간자율위원으로 독자성과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요. 그날도 제가 왕치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과 같은 위원회의 정체성, 기형적으로 운영이 된다가
나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2005년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원회가 진흥원 시절의 독립제로 가든지 민간자율독자기구로서 위원회의 정체성을 제
대로 구현하려면 새롭고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3월
18일 무용분야 현장업무보고 때 발언했구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양상블이 2024년에 만들어졌다고 이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나요?
'양상블'이라는 명칭이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아르코양상블은 실무진에서요.

성기숙 위원 : 왜 여쭙봤느냐 하면 전통예술원에 '거문고양상블', '가야금양상블' 등이 있는데 우리
의 것을 벤치마킹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름을 잘 지었어. 작명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
쭙본 것이구요. 왕치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에서는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소
위 문체부에서 국가예술단체에서 청년예술단원을 하잖아. 명단이 해외유학 재학생들이네요. 해외청년
예술단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현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취
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공연할 때 공연장 대관이나
실질적으로 공연을 실행하려면 출연지의 인적자원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또 해외 단원들에 대한 출연료나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조력자는 누가 매칭되어 있는지? 문화원과 대사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데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연주들,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고 하면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고요. 처음에는 창단만 일단 해 놓으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시니어가 음악감독으로 한 사람이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행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문화원이나
대사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가도 괜찮겠다." 라고 하면 그 팀한테 연락하면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 행사 성격에 맞는 인원을 선발하고요.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요. 수업을 하는 학생
들이니까요. 현악4중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악4중주 팀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습해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뭘 하고 돈을 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행사에
사람만 파견해 주는, 연결을 해 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스템이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팀을 짜서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 부담하는 것은 학생들의 출연료만 해 주니까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죠.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시니어라는 분이 단원을 다 선발하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선발할 때는 처음에는 6월 달에 했는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6월에 했을 때는 기악부분, 성악부분의 선생님들 추천을 받아서 서류심
사를 하고 줌으로 면접심사를 해서 46명을 뽑았구요.

장미진 위원 : 왜냐하면 유학생이면 들고 날고 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충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것은 34세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이상은 자연스럽게 나가서 시니어 단원이 되는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1년 단위로 활동한 내용을 보고 그 사람 나이와 조건을 따져서 빠지고 1년 단위로 충원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기숙 위원 : 현지의 시니어 예술가가 구심체가 돼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흠어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네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런 것은 기획사한테 맡기면 기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가서 발대식을 할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단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좋아하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만간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클래식 음악 쪽이 상승되는 것도 있지만 지속가능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따로 TF팀을 만들고 토론회를 몇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체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일단은 단순하게 그런 정도로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멘토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것은 전문가 토론을 해서 보완을 해 가려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보훈부 사업에 들어가면 공연비를 받아야지 우리가 왜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협력하는 체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행사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사람들을 쓰지 못하게 우리는 “개런티는 우리가 줄게.”, “이 사람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보훈부에서는 체재비와 호텔비.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지휘자가 연습을 시키니까 학생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장미진 위원 : 앞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까지 나가면 더 좋죠. 그런데 일단 오스트리아에서 해 보니까 두 사람이 현지에서 지휘자와 매칭이 되어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명함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성기숙 위원 : 우리는 문체부 소속 학교니까 해외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학교로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현지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현지 조달이 가능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할 때는 뉴욕에 단체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단체인데 그쪽에서 메세나협회하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콩쿠르에서 우승한 인력들은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그냥 끝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카네기홀 같은 데 무대를 만들

어주고 시장에 내놓자고 해서 제안해서 메세나협회에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매칭해 줘요. 그 사람이 마스터클래스를 했을 때 이들과 연결시켜주는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보다 더 운영과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성기숙 위원 : 클래식 앙상블이고 우리 음악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여기에 계시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오시기 전에 시작이 돼서 실무진 선에서 이미 보고가 끝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났는데요. 정말 그것은 제 불찰이고 제가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위원님,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을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빠진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나머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요한 사안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니요. 다른 안건은 아니고요. 속기록 공개 관련된 것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괜찮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보고안건 같은 경우에는 접수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라서요. 보고를 드리고 바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건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요. 그래서 절차상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개선안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같은데요. 일단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안 계신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접수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관의 속기록은 회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2019년 3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는 전체회의 속기록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자고 결정하셔서 그 이후에 현재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기록이 작성되면 이후 속기록에서 오탈자 등의 자구 수정을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을 검토하시고 서명하시고 최종 속기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속기록 서명을 받는 날이 차기 회의날 받기 때문에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회의에 불참하시거나,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서명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24년 10월 회의부터 속기록이 미공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나 외부에서 속기록에

대한 공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속기록 검토 방식을 온라인 배부와 온라인 서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이후에 사무처에서 오탈자 등을 확인한 후에 위원님들께 온라인으로 보내드려서 서명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소급적용을 해서 미완성 속기록 4건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속기록 서명이 완료되기 전에는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 전 버전이기 때문에 외부 공개 및 공유는 불가하고요. 그 이후 서명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명을 하지 않은 건 오늘 같은 날 다 받으면 됐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고요. 회의 현장에서 자료를 드리면 속기록이 보통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시는 게 어렵다 보니까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국회에서 뭘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료를 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실무적 차원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핑계를 대고 안 냈는데요. 그쪽에서는 회의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규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회의에 참여를 했느냐로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프레임을 짜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개선안대로 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속기록을 하다 보면 많이 아니지만 한 두 글자 정도 수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때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수정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수정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지만 오탈자 체크 정도 수준이고요.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앞뒤의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정은 어렵습니다. PDF로 드려도 메모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무처장님께도 한번 여쭙봤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뭔가 이상한데?”, “이것은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할 때마다 자료를 누군가에게 쫓아가서 요청하거나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뭘 그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한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게 없습니까?” 라고 여쭙봤더니 “그냥 요청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쉽지가 않고 자료가 워낙 축적이 되어 있고 온라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왕치선 위원 : 외부에서는 우리가 내부자라고 해서 같이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내부자가 아닌 게 내부의 자료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려운 경우라서요. 실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요청을 하려면 한 주 정도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하지 말지.” 이 과정을 늘 거쳐서 10번 할 것은 1번 하는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자료까지 봐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료를 보면 자료요청을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실무진한테 요구를 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장미진 위원 : 예를 들면 50주년 연구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다 흥미로운 제목이라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끝내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왜 못 보내드려요?

왕치선 위원 :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안 하게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책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책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정하려고 하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 속기록 공개절차 개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오늘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한 7건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 회차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작년에 문예진흥기금 전담심의회를 처음 적용해서 했고 작년에 음부즈만이나 이의제기가 있던 것을 공유받고 싶은데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전담심의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 심의방식의 개선점 등을 워크숍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분야별 현장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저는 직접 가기도 했고 무용 분야는 제가 좌장을 맡았고요. 위원장님은 거의 전 분야에 참석하셔서 서두에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 저도 모든 분야에 대해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지금부터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 전담심의회 참여하면서 개선점 등을 차분하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공정한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플랜을 짜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토론회 결과, 보고 결과를 해당 분야의 위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우리가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할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위원님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또 할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무용 분야는 이슈 몇 가지가 요약되어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담심의회 강점이라는 것은 일회성 심의가 아니라 현장의 모니터 평가 환류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매체지원, 비평지원은 상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월간지는 발간날짜를 준수해 줄 것을 체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계속 요구를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인터넷도 매체에 올라오는 게 예를 들어서 1일과 5일이라고 하면 일주일 이후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후속으로 들어가는 원고도 있고 재수록되는 원고도 있고요. 그래서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빨리 진척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말씀을 실무진에서는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2025년 4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4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4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00분 회의 종료)

